

상복 터진 전주시, 정책 우수성 인증

생산성 대상 · 지속가능발전 대상 · 녹색도시 최우수 · 한글날 국무총리상 등 수상

민선6기 전주시가 각종 정부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면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도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생산성 대상은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서, 시는 총 16개 지표로 △주민의 삶의 질 △지자체 역량 등 2개 영역을 평가한 이번 생산성 대상에서 문화시설기반 이용 수준, 보건복지시설 확충 수준, 보육시설 이용 수준, 지역주민 행복도 등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전주시를 최우수수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 조건과 문화기반시설 향유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했다.

또한, 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실천했던 전국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지다인 3040'으로 참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지다인 3040'은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너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가대표 녹색도시로도 선정됐다.

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7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생태체험공간으로 만든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자동차로 가득했던 대로를 명품가로수길로 조성한 전주역 앞 찻마중길 사례로 응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가 감 등 숲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우수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가 제출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전주역 앞 찻마중길은 이번 산림청 평가에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가 녹색도시로 선정되면서, 오는



학도병 현충탑 앞에 현화하는 군인 지난 27일 전주 가림산공원에서 순국 학도의용군 추념제가 열린 가운데 육군 35사단 장교가 학도현충탑 앞에 현화하고 있다.

12월로 예정된 전국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도시 숲유니콘'도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제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전주완관본체 복원 등 한글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

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한국소설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절차 돌입

1차 현지실사 마쳐... 2018년까지 공인 받을 계획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보다 안전한 도시기반을 갖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WHO(국제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면, 전세계적으로 도시브랜드가 높아지고 글로벌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도 강화

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손상감소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을 위한 1차 단계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공인센터장과 백경원 국제안전 도시 공인 평가위원 등 2명의 국내 실사평가위원으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사전실사를 마쳤다.

이들은 전주시역 기관 4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방범포력예방 △화교어린이안전 △낙상예방 및 노인안전 △자살예방 △교통안전 △재난해해예방 등 6개 분야에 대해 보고 를 받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제안

전도시 인증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 했다.

시는 이번 예비실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18년 초로 예정된 스웨덴에 위치한 WHO 국제안전 도시 인증센터의 2차 본 실사를 받게 된다. 실사를 통과하면 국제안전 도시로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될 경우, 전북에서는 최초로 된다. 현재 국내에는 12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8월 안전도시 조례도 제정했다. 또 안전도시협의회 및 7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분야별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다. /김민근 기자

함께 술 마신 소녀 성추행한 10대 실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 5월 13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내 한 공사장에서 함께 술 을 마시던 B(13)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원 룰에서 헤어지자던 여자친구 C(14)양 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했고, 또 다른 피해자 를 추행해 그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 다. /이상민 기자

자원봉사로 전주 빛낸 5인 천사 시상

일반인 대상 정미자씨 · 청소년 대상 이재혁씨 등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2017년 3분기 으뜸자원봉사자로 일반 3명, 청소년 2명을 선정하고, 시상실에서 시상식을 진행 하였다.

'자원봉사로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진행되는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은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전주시의 18만여 자원봉사 중 7월부터 9월까지의 선정기간 내 자원봉사 횟수, 봉사시간, 참여연수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일반 3명, 청소년 2명이 선정되며, 이들에게 전주시장님 상을 수여 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표창장을 받는 주인공은 일반인 대상 모동지작은도서관의 정미자씨(60세,여), 인후3동 전주시 새마을회 소속의 이진택씨(57세,남),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활동을 한 윤단비씨(21세,여) 등 3명과 청소년 대상 이재혁씨(17세,남), 박효상씨(17세,남) 등 2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동지작은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운영 및 서가정리활동, 인

후3동 전주시새마을회 봉사활동,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및 행사지원 활동, 온누리교통봉사대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의 강의나 행사운영 보조 및 부스운영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에서는 특별히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진행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증은 사단법인 전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위해서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등록된 자원 봉사 실적 5회 또는 10시간인 자에게 발급되어지며, 발급대상자 들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초청 문화탐방행사

덕진경찰서는 27일 보안협력회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문화탐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 40여명을 초청해 부안 마실길과 새만금 방조제 등을 방문해 전북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낯설은 환경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문

화행사로 따뜻한 정을 전달했다.

함현배 덕진서장은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은 사람들의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해 탈북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경찰서, 청탁금지법 교육 3분기 베스트 완산경찰 포상

덕진경찰서는 27일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및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예로 들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질의 응답을 받는 등 흥미로운 호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함현배 덕진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서는 27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심으로 직무에 충실한 경찰관들에게 베스트 경찰관 포상을 실시했다.

베스트 완산경찰은 분기별로 공감받는 경찰, 든든한 경찰, 공정한 경찰 등을 기준으로 치안현장에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선별해 포상하고 있다.

함현배 덕진서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베스트 완산경찰이 있어 완산이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경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욱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암서예관	강암 송성용전	